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

李 殷 昌

一、序言

新羅에서는 馬刻文土器를 製作 使用하였던 모양으로 그 遺品이 出土되고 있다. 그리고 또 新羅와 伽耶에서는 馬形土器를 製作 使用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 遺品이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出土되고 있다. 이들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紹介와 考察이 있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하여는 區區한 學說이 있어 그 定着된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들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를 비롯하여 이밖에 여러가지 動物形土器에 대하여 學術誌에 많은 論攷가 發表되었다(1).

그리고 筆者도 오래전부터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를 비롯 여러가지 特殊形態를 하고 있는 異形土器에 대하여 關心을 가졌었고 이에 대한 研究도 繼續하였다(2). 一九七三年 가을에 筆者는 慶州 皇南洞 古墳發掘調査를 直接 擔當하였을 때 「神龜形土器」와 「角坏 및 角坏받침」 등이 出土되어(3) 異形土器에 대한 關心이 더욱 두터워졌다. 그런데 마침 내지난 一九七七年 가을에 또 筆者는 慶州 仁旺洞古墳發掘調査를 擔當하여 이 仁旺洞古墳에서 馬刻文土製品을 發見할 수 있어서 크게 注目되고 있다. 이 馬刻文土製品은 新羅의 馬刻文土器와 譬喩된다. 그리하여 이에 다시 新羅의 馬刻文土器에 대하여 새로운 事實을 알게 되었고 따라서 馬刻文土製品은 馬刻文土器·馬形土器 등과도 相互關係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 등이 어떠한 構造와 樣式으로 만들어졌

고 그것이 어떠한 變遷과 發達을 하였으며 또 어떠한 性格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에 記述하고자 한다. 이것이 學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多幸이라 하겠고 앞으로 先學과 江湖 諸賢의 叱正을 받고자 한다.

二、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

馬刻文土器는 平凡한 土器에 馬刻文을 線刻描한 것이며 馬形土器는 異形土器에 속하는 動物形土器로 無乘馬形과 騎馬形으로 區分되는데前者는 그냥 馬形土器이고 後者は 騎馬人物土器에 該當된다. 이들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로 나누어 그 土器의 燒成、形態、樣式을 살펴보고 그 遺品의 特色과 分布狀을 알아 보기로 한다.

(一) 馬刻文土器

馬刻文土器는 現在까지의 出土例로 보아 주로 新羅地域에서 出土되고 있고 그것은 大體로 「有臺長頸壺」의 壺身の 肩部에 말(馬)을 線刻畫로 그려 配置한 遺品들이다.

(一) 馬刻文土器(其一)(國立慶州博物館所藏)(4)

馬刻文土器의 典型的인 遺品이다. ① 燒成은 胎土가 精緻한 暗灰青色의 硬質系陶質土器이다. ② 器形은 均衡이 잘 잡힌 典型的인 臺脚·壺身·頸部로 區分되는데 臺脚은 一段構造에 透窓이 열린 平凡한 形式이고 壺身은 大體로 球形을 하고 臺脚 위에 놓였으며 頸部는 壺身の 頂上에서 大體로 直立狀態를 維持하며 위로 뻗어 올라 갔는데 中間以上은 若干 外反하였다. 口緣部는 頸部에서 內傾狀으로 突變하고 先端은 八字式으로 끝났다. ③ 紋樣은 壺身の 中間位에 上下로 陰刻線을 돌리고 그 間區에 縱立集短細線을 等間隔을 두고 配列한 帶文을 이루었다. 頸部는 突帶文을 三段으로 돌리고 그 上下 間區에는 앞에 말한 壺身帶文方式의 縱立集短細線을 等間隔을 지키며 上段과 下段에 交互로 配列하였다.



圖 1. 馬刻文土器(其一) 國立慶州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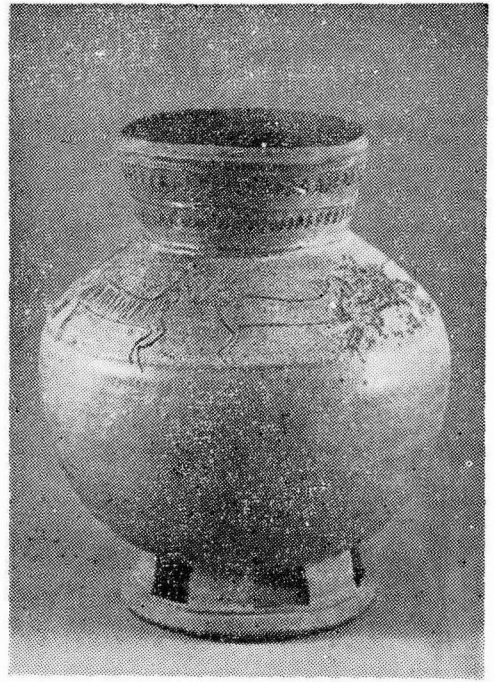


圖 2. 馬刻文土器其(其二) 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



圖 3. 馬刻文土器 (國立中央博物館所藏)



圖 4. 左馬刻文土器斗 詳細部

馬刻文은 線刻畫로 모두 五마리의 말(馬)을 壺肩部에 一列로 돌려 그려졌다. 매우 간단한 表現技法이지만 다리, 꼬리, 몸, 머리를 잘 그렸다. 몸은若干 비친 縱線을 그려 얼룩말의 느낌을 주기도 한다. 특히 다리는 앞다리 하나 뒷다리 하나씩 律動感 있게 그렸는데 이는 다리를 모아 뛰는 곧 走馬의 格調를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原始繪畫의 인品格과 古拙한 線律도 注目된다(實測值 全高 四三 cm, 口徑 一五·五 cm 脚底徑 二〇 cm)

(二) 馬刻文土器「其二」(東亞大學校博物館所藏(5))

馬刻文土器「其二」도 前者「其一」과 같다. ① 胎土가 精密하고 土器의 全面은 부드러운 觸感을 주는 灰青色을 하고 있는데 肩部에 自然釉를 나타내어 硬質陶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② 器形은 역시 典型的인 有臺長頸壺로 臺脚은 一段構造의 透窓이 뚫린 低臺이고 壺身은 球形이며 頸部는 若干의 外反을 하면서 위로 올라 갔으며 그리고 口緣部는 頸部에서 內傾狀으로 變化하고 그 先端은 \wedge 字式으로 끝났다. ③ 紋樣은 頸部에 두 줄기의 突帶文을 돌리고 그 上下間區에 波狀文帶를 돌렸다.

馬刻文도 前者와 같이 壺肩部에 五마리가 같은 方向을 取하며 一列로 그려져 있다. 이들 馬刻文은 역시 前者와 같이 긴 몸의 앞뒤에 다리를 모아 디딘 것 처럼 하나씩의 다리를 그렸고 五마리의 말(馬)중에서 二마리는 몸에 縱線을 그려 「얼룩말」을 이루고 다음 三마리는 그 몸이 민둥한 表現을 하고 있어 「여니말」로 보인다(實測值 全高 三五 cm 口徑 一七 cm 臺脚底徑 一八 cm)

(三) 馬刻文土器「其三」(國立中央博物館所藏(6))

馬刻文土器「其三」도 역시 前者「其一」과 「其二」와 같다. ① 燒成은 胎土가 精緻하고 아름다운 灰青色의 硬質陶에 속한다. ② 器形은 역시 前者들과 같은 典型的인 有臺長頸壺로 臺脚과 壺身과 頸部로 構成되었다. 臺脚部는 八字形으로 벌어진 低臺로서 突帶를 돌린 二段構造에 上下二列로 形成된 透窓이 交互로 配置되었고 壺身은 球形을 이루었으며

그 위에 頸部가 直立狀으로 올라갔다. ③ 紋樣은 長頸部에 斜格子文을 施紋하고 그 上部에 突帶를 돌려 口緣部와 區分하고 口緣은 그대로 뻗었는데 輕微하게 안으로 굽었다.

馬刻文은 前者「其一」과 「其二」와 같은 技法이고 같은 系列이지만 그 描寫와 配列은 若干 다른 點이 있다. 壺身의 肩部와 復部에 動物을 二列로 配列하였다. 上列에는 五마리의 말을 配置하였는데 길쭉한 몸에 네 다리를 벌려 디디고 갈기를 곤두세우고 꼬리를 뒤로 뻗고 달리는 姿勢다. 그리고 下列에는 입을 벌린 「호랑이」와 뿔 달린 「사슴」과 위와 같은 三마리의 말(馬)이 줄을 지어 치닫는 모습이다(實測值 全高 cm 口徑 一八 cm 臺脚底徑 二四·二 cm)

以上 記述한 馬刻文土器 以外도 이러한 馬刻文土器를 個人이 所藏한 遺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나 目擊한 바 없어 그 모습은 모르겠다. 그런데 上記 遺品에서 一般的으로 考察되는 것은 ① 모두 有臺長頸壺로 約束되었고 ② 馬刻文은 모두 有臺長頸壺의 肩部에 一列 또는 二列로 配置되었으며 ③ 그 馬刻文은 靜止된 「말」이 아니라 달리는 말이며 ④ 그 말은 「얼룩말」이 많고 또 보통 「여니말」도 있으며 ⑤ 그 表現技法은 모두 線刻으로 統一되었는데 素朴하고 古拙한 土俗的인 表現이다.

(二) 馬形土器

馬刻文土器는 土器의 몸에 線刻그림으로 馬形文을 配置하였지만 이와는 달리 土器自體를 馬形으로 造成한 馬形土器가 있다. 이 馬形土器는 주로 伽耶地域에서 많이 出土되었다.

(一) 馬形土器「其一」(國立中央博物館所藏(7))

玄風地方에서 出土된 馬形土器가 있다. ① 胎土는 精密하고 高火度의 燒成으로 褐黑色의 온 몸에 自然釉가 나타난 硬質陶이다. ② 器形은 馬形을 하고 있는데 등에 盃形器를 짊어지고 있어 容器的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③ 그리고 紋樣은 點線文으로 장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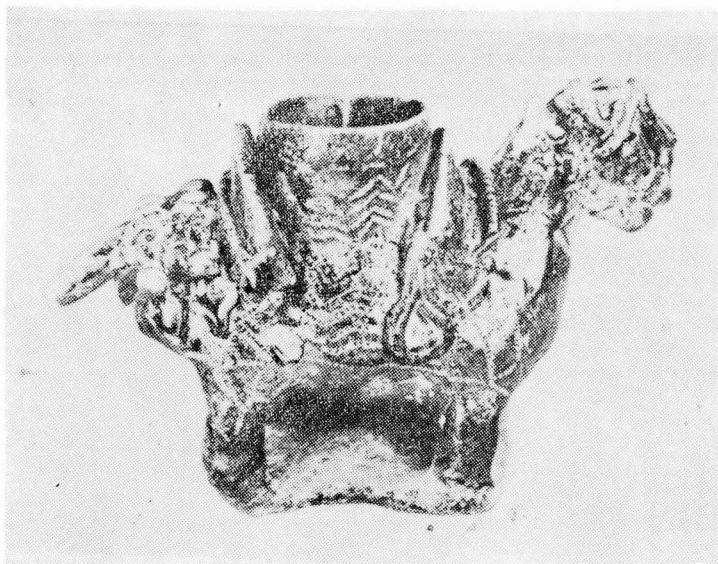


圖 5. 馬形土器(其一)慶尙北道玄風地方出土 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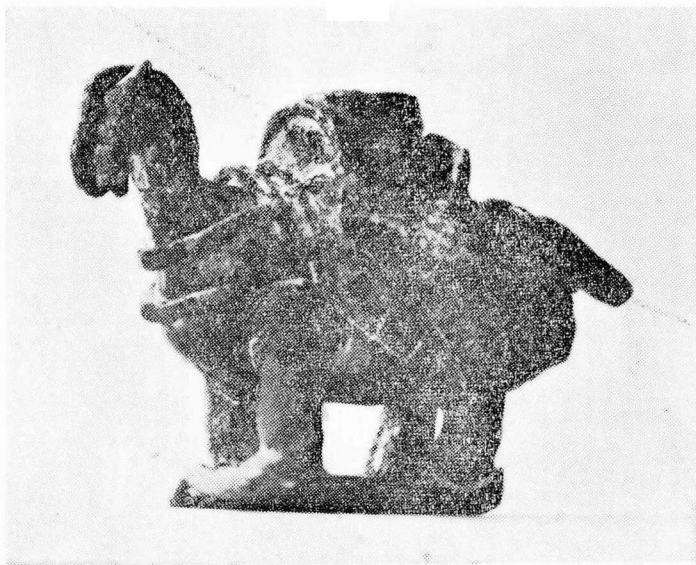


圖 6. 馬形土器(其二)李秉喆氏 所藏

馬形은 네다리를 벌리고 板狀 臺上에 서 있는 狀態이다. 말머리에는 「말고삐」가 보이고 엉덩이에는 杏葉과 雲珠가 달렸으며 뒤에는 꼬리대 신에 둥근 고리를 달았음에 注目된다. 그리고 말등에는 鞍橋가 마련되고 양쪽에 鐙子가 表示되었다(實測值全高一·四 cm 길이 一九·五 cm)

(二) 馬形土器「其二」(李秉喆氏所藏(8))

伽耶의 遺品이나 그 出土地는 未詳이다 그 燒成·器形·紋樣等이 모두 前者「其一」과 同一系列이다. ① 高火度の 燒成으로 黃灰色에 褐黑色으로 얼룩지고 全面에 自然釉가 덮인 硬質陶이다. ② 器形은 板狀의

臺上에 네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데 盃形坏를 짚어지고 있어 容器的인 形態를 갖추고 있다. ③ 紋樣도 點線으로 施紋되었다.

馬形도 역시 前者「其一」과 같으니 곧 面繫·胸繫·尻繫가 뚜렷하다. 그리고 前輪과 後輪이 整然하게 갖춰진 鞍橋 등 乘馬의 모습을 이루었다(實測值 全高一·七 cm 臺底八·八×六·一 cm)

(三) 馬形土器「其三」(小倉武之助氏 所藏(9))

伽耶의 遺品으로 傳하나 그 出土地는 역시 未詳하다. ① 實物에 接하여 調査한 바 없어 燒成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역시 典型的인 硬質陶에 속하는 것이다.

② 器形은 馬形을 形成하였으나 高坏의 臺와 같은 臺上에 놓고 器口部가 달려 動物形에 容器的인 形態를 갖추었다. ③ 紋樣은 없고 素文이다.

馬形은 네다리를若干구부려 徐步하는 느낌을 준다. 面繫와 尻繫가 明確히 表出되고 障泥와 鞍褥과 鞍橋가 整然하게 갖추어진 乘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實測值는 未詳)

(四) 馬形土器「其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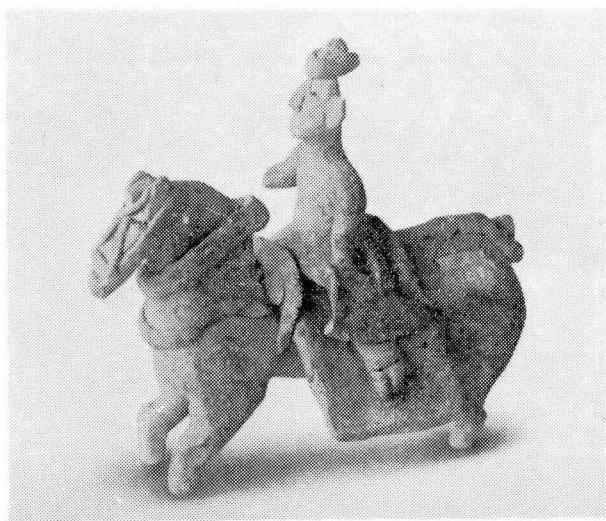


圖 7. 馬形土器(其三)小倉武之助氏 所藏



圖 8. 馬形土器(其四)李秉喆氏 所藏

(李秉喆氏所藏(10))

伽耶의 遺品이나 그 出土地는 역시 未詳하다. 그 燒成、器形 등은 前者「其三」과 같다. ① 高火度の 燒成으로 典型的인 灰青色에 自然釉가 보이는 硬質陶이다. ② 器形도 寫實的인 馬形을 하고 있는데 高坏의 臺部와 같은 臺上에 떠받혀 있고 등(背)에 器口가 열려 容器的인 모습을 갖추었다. ③ 紋樣은 역시 없고 素文에 숙한다.

馬形도 前者「其三」과 같이 역시 네다리를 若干 구부려 徐步의 姿勢를 取하고 面繫、胸繫、尻繫가 整然하게 表現되었다. 그리고 鞍橋가 등

있는 意匠은 兩者가 같다. 그리고 또 鞍橋가 裝置되어 있어 乘馬를 뜻하고 있으며 「사람」이 타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騎馬形인 騎馬人物土器와 相通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三) 騎馬人物土器

騎馬人物土器는 文字 그대로 馬上에 騎馬人物을 構想한 典型的인 騎馬形土器이다. 이들 遺品이 伽耶地域과 新羅地域에서 出土되어 注目되고 있는데 그 類例는 다음과 같다.

위에 놓이고 兩側으로 鐙子가 垂下되어 乘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實測值 全高 一五·五cm 길이 一 九·五cm)

以上記述한 馬形土器는 「其一」과 「其二」는 板狀의 臺上에 네다리로 디디고 섰고 「其三」과 「其四」는 高坏의 臺部와 같은 臺部가 마련된 위에서 있는 곧 構造上으로 兩分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馬形土器는 모두 등(背)위에 口徑部를 形成하고 있어서 하나의 容器的인 構造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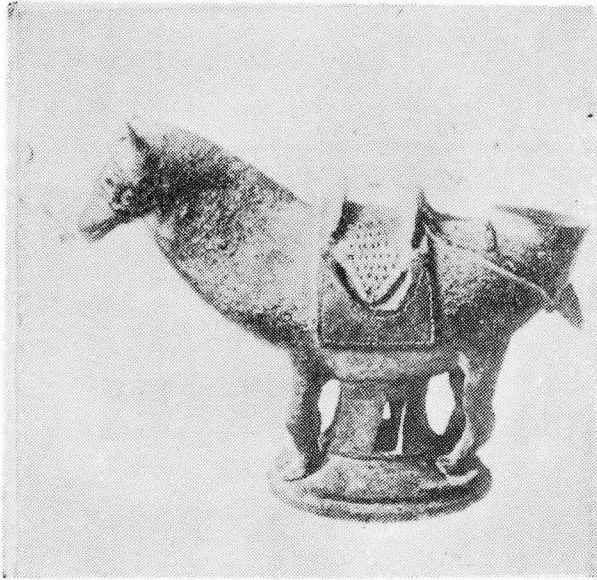


圖 9. 馬形人物土器((其一) (鄒伽)傳慶尙南道 出土



圖 10. 騎馬人物土器((其二) (古新羅)慶州 出土・國立慶州博物館所藏

1、騎馬人物土器「其一」(傳慶尙南道 出土(1))
 騎馬人物土器「其一」은 伽耶遺品으로 注目되고 있다. ① 高火度の 燒成인 灰青色의 硬質系의 陶質土器이다. ② 器形은 典型的인 騎馬形으로 容器的인 意匠은 없고 土偶的인 象形土器이다. ③ 紋樣은 없고 土器의 全表面은 素文이다.
 騎馬의 形態는 네다리를 若干씩 구부려 走馬의 모습을 하고 있다. 面繫、胸繫、尻繫가 뚜렷하고 障泥와 鞍褥과 鞍橋가 마련되었으며 이 鞍橋의 兩側에 鐙子가 垂下되었는데 이들 鐙子에 발을 걸고 鞍橋에 正座한

고 있다.
 騎馬人物像을 하고 있다. 人物은 土製이기 때문에 詳細한 表現은 못하였지만 襦袴의 肢體形服裝에 弁形鐵帽를 쓴 武人으로 推定된다(實測値는 未詳)
 2、騎馬人物土器「其二」(國立慶州博物館所藏(2))
 慶州에서 出土된 新羅의 遺品이다. 이 騎馬人物土器도 高火度の 燒成으로 灰青色을 한 硬質陶에 속한다. 그리고 그 器形에 있어서도 역시 前者「其一」과 같이 容器的인 意匠은 없고 純粹한 土偶的인 構造를 하고 있다.
 形態는 破損部分이 많아 그 全貌를 알기에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모습을 알 수 있다. 네다리를 바로 디디고 서 있는 姿勢로 자간을 물리고 面繫와 胸繫가 보이며 鞍橋 위에 사람이 타고 앉아 이른바 騎馬人物土器를 形成하였다. 人物은 新羅人으로 帽頂이 높은 高頂巾을 썼다. 斷石山 神仙寺址의 岩壁에 彫刻된 供養人物의 高頂巾과 日本의 茨城縣 高戶에서 出土된 「はにわ(埴輪)」의 高頂巾을 쓴 人物



圖 11. 騎馬人物土器「其三」(金鈴塚 出土・國立中央博物館所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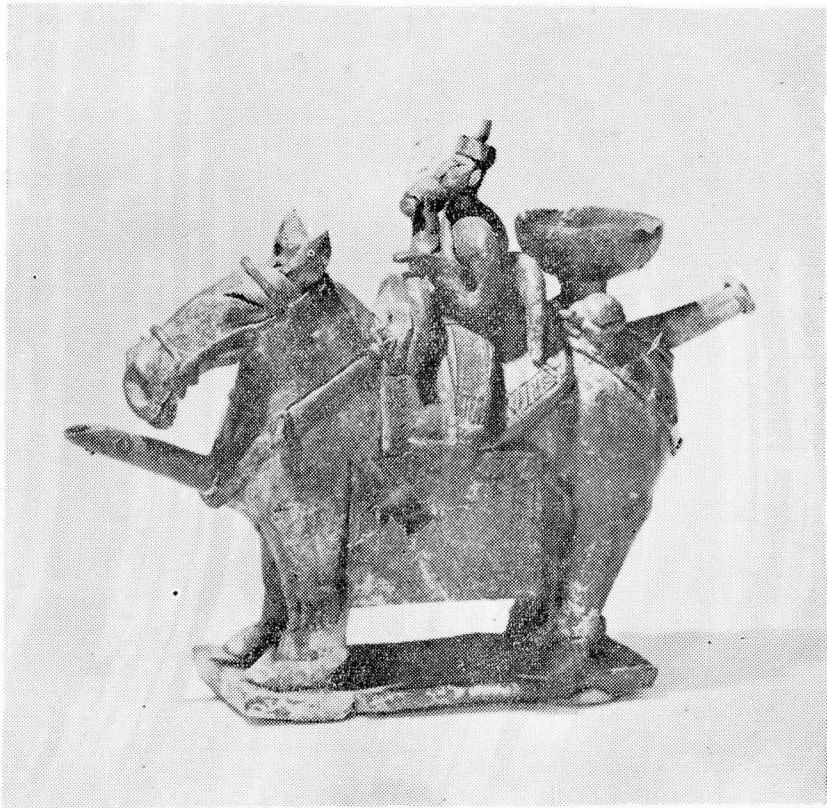


圖 12. 騎馬人物土器「其四」(金鈴塚 出土・國立中央博物館所藏)

등과 同一樣式을 하고 있어서 當時社會에 相當한 地位에 있는 新羅人의 騎馬像 印을 짐작할 수 있다(實測值 全高 一五 cm 길이 一三 cm)。

三、騎馬人物土器「其三」(國立中央博物館所藏(13))

慶州 金鈴塚에서 出土된 騎馬人物土器(甲)이다. 暗灰青色을 보이는 역시 硬質陶로 典型的인 新羅의 騎馬人物土器이다. 前者「其一」과「其二」와는 달리 胴문이(尻部)쪽에 갈대기 모양의 注入口가 달리고 正前 胸部에 注出管이 달려 있어 騎馬人物形의 象形的이면서 水注式의 容器的인 意匠을 兼備하고 있다.

形態는 板狀의 臺上에 네다리를 整然하게 디디고 直立한 姿勢로 上述한 馬形土器「其一」과「其二」와 같은 構造이다. 말(馬)은 寫實的으로 精巧하게 表現되었는데 「자갈」(轡)을 물리고 고삐(手繫)·面繫·胸繫·尻繫가 整然하며 障泥·鞍褥·鞍輪·鐙子 등이 整備되었으며 杏葉과 雲珠로 裝飾되어 있어 實로 驚歎할만한 造成 솜씨이다. 그리고 人物은 兩側에 配慮된 鐙子에 발을 걸고 鞍橋에 앉아 고삐를 잡은 의젓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곧 札甲과 弁形鐵帽로 武裝한 武人騎馬像 印을 알 수 있다(實測值 全高 二三·四 cm 길이 二九·四 cm)。

四、騎馬人物土器「其四」(國立中央博物館所藏(14))

騎馬人物土器「其四」는 前者「其三」과 같이 出土된 遺品(乙)이다. 燒成·器形·말의 形態·馬具裝飾 등 모든 것이 前者와 같다. 다만 이 遺品은 그 精巧한 點이 前者「其三」보다 떨어져 있고 또 人物도 武裝한 武人이기는 하지만 그 武人의 服飾도 그 盛裝한 모습이 前者「其三」에 比하여 뒤떨어지고 있다(實測值 全高 二一·三 cm 길이 二六·八 cm)。

以上 記述한 騎馬人物土器는 「其一」과「其二」는 非容器的인 土偶的인 構想에 속하며 「其三」과「其四」는 象形的인 形象에 容器的인 面을 兼備한 構想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그 根本的인 意匠은 騎馬人物像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騎馬人物土器의 말(馬)은 當時의 新羅, 伽耶에 있어서의 名馬들이라 하겠고 裝飾된 馬具 또한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의 古墳에서 出土되는 그것과 같아서 역시 新羅와 伽耶의 馬具裝

飾의 風習狀態 그대로 印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騎馬人物은 모두 窄袖 肢體形의 衣服이고 갑옷(甲)을 입고 弁形鐵帽(冑)와 高頂巾 등을 쓴 典型的인 武裝을 한 新羅人 또는 伽耶人 印을 알 수 있다.

三、馬刻文土器·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 등이

지니고 있는 諸問題

(一) 馬刻文土器의 性格

馬刻文土器는 文字 그대로 土器 表面에 線刻畫로 말(馬)을 그린 것이 다. 이러한 線刻畫의 裝飾土器는 馬刻文土器 以外에도 그 類例가 許多하다. 곧 長頸壺와 有臺長頸壺 등의 肩部 또는 高杯의 뚜껑(蓋)에 人物과 動物을 線刻畫로 裝飾하는 例가 있다. 이들 線刻畫裝飾土器는 그 意匠으로 보아 土偶裝飾土器와 같다. 다시 말해서 土偶裝飾土器는 人物과 動物을 立體的인 土偶로 裝飾하는 技法이고 線刻畫裝飾土器는 人物과 動物을 平面的인 線刻畫로 裝飾하는 技法이 相互 다를 辨이지 兩者가 모두 같은 意圖이고 같은 意匠이다.

그리하여 馬刻文土器의 線刻馬文은 一種의 裝飾의 뜻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런데 筆者가 생각하는 바는 馬刻文土器는 그 有臺長頸壺라는 容器的인 目的으로서의 土器를 副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有臺長頸壺의 肩部에 線刻畫한 말(馬)을 被葬者에게 供獻하는 뜻이라고 推定된다. 이러한 말(馬)을 被葬者의 靈魂에게 供獻하는 資料로 仁旺洞 A 群 第五號古墳인 古式石槨墳에서 出土된 馬刻文土製品이 있다. 여기 容器的인 土器가 아니라 말(馬)을 專用으로 하는 目的下에 만들어진 馬刻文土製品이 古墳에 副葬되는 事實은 前述한 各種 馬刻文土器와 더불어 被葬者 곧 靈魂이 탈 수 있는 말(馬)을 供獻하는 뜻이라 하겠다.

馬刻文土製品은 赤褐色 陶製로 된 圖板形의 表面과 裏面에 各各 馬刻畫를 하나씩 線刻畫로 그렸다. ①表面의 馬刻畫는 앞다리와 뒷다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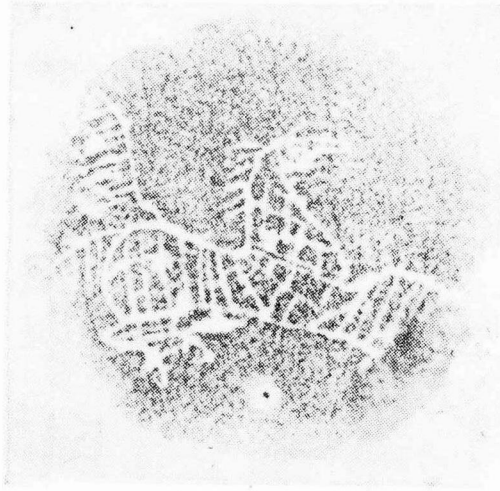


圖 14. 馬刻文土製品의 表面拓影



圖 13. 馬刻文土製品의 表面(仁旺洞古墳 A群 第五號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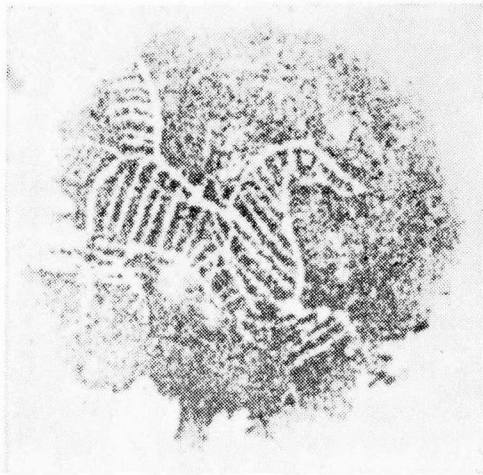


圖 16. 馬刻文土製品의 裏面拓影



圖 15. 馬刻文土製品의 裏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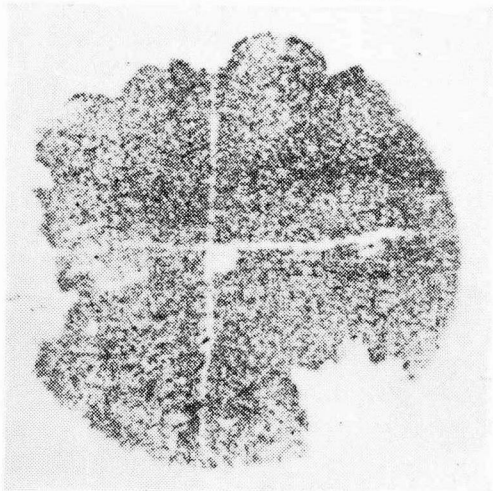


圖 18 十字文土製品의 拓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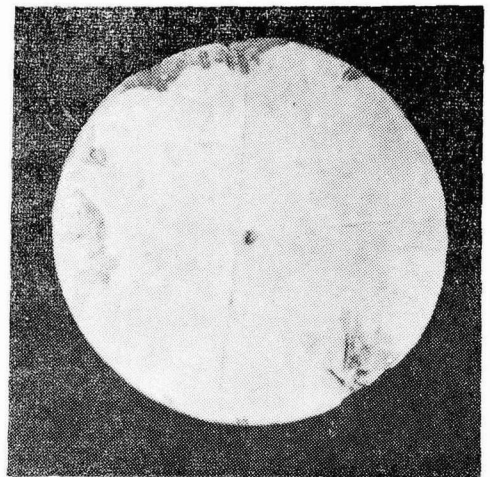


圖 17. 十字文土製品(仁旺洞古墳 A群 第五號古墳出土)

구부러 뛰는 모습이 머리를 들고 걸기를 나타내며 疾走하는 表現이다. 이 말(馬)의 몸과 다리를 線描로써 덮었는데 이는 馬甲을 着用한 表現으로도 推定된다. ② 裏面の 馬刻畫도 역시 表面의 馬刻畫와 같이 앞다리와 뒷다리를 구부러 뛰는 樣相이고 그리고 머리를 夔臍 들고 걸기를 나타내며 疾走하는 姿勢이다. 몸에 縱線을 그려 馬刻文土器에 보이는 「얼룩말」과 같기도 하지만 앞다리와 뒷다리를 線刻으로 덮어 이도 곧 馬甲을 着用한 것으로 推定되기도 하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實測值直徑 五·七cm 厚 二·二cm) ③ 이 馬刻文土製品은 十字文土製品과 같이 出土되고 있어 注目된다. 十字文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으나 或 天體를 意味하는 것으로 馬刻文과 깊은 關係가 있지 않은가도 생각된다.

馬刻文土製品의 馬刻畫의 技法은 그 主體가 線刻描로서 馬刻文土器에 보이는 馬刻畫와 同一樣式이며 또 馬刻畫의 表現은 馬甲을 着用한 것으로 推測되고 公毋尼(尻部)에 높이 세워 나타내게 보이는 것은 旗幟로 推測되고 있어서 高句麗의 雙楹塚 姜道 東壁의 札甲과 馬甲으로 武裝한 騎馬圖와 鎧馬塚 玄室 西壁의 馬甲을 着用한 鎧馬圖와 相通되다.

古代社會의 古墳築造에 있어서 被葬者 곧 死者의 「죽임」에 대한 생각은 人間의 終末을 짓는다는 생각보다는 저 冥界(天界—光明界)에 가서 오래오래 「生」을 누리도록 바라는 繼世思想이 있었다. 그리하여 高塚古墳을 營設하고 各種 器物을 副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上述한 馬刻文土製品 등에 表現된 馬刻畫와 高句麗古墳壁畫에 表現된 騎馬圖 등은 모두 같은 意匠으로 곧 被葬者에게 供獻하는 말(馬)로서 이 말(馬)을 타고 冥界에 가도록 바라는 뜻이라 하겠다.

(二)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의 性格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는 象形的인 土偶의 形態를 갖추고 있지만 한편 容器的인 土器의 構造를 갖추고 있는 것이 大部分이다. 그런데 그 用途의 主體는 容器的인 土器라기 보다는 土偶의인 馬形 그것이다.

馬形土器는 앞에 記述한 바 있는 馬刻文土器 또는 馬刻文土製品의 線

刻으로써 이룩된 平面的인 馬刻畫의 例가 陶土로 彫刻된 立體的인 馬形土器로 進一步한 것이다. 그리고 騎馬人物土器에 있어서는 앞에 말한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 등과 馬形土器의 말탄 사람이 없는 無乘馬形式에서 被葬者 곧 主人公이 말을 타고 있는 騎馬人物形式의 具體的인 樣相으로 더욱 發展한 것이다. 여기 平面的인 線刻畫로 된 馬刻文土器와 馬刻文土製品·立體的인 表現을 한 無乘馬形式의 馬形土器·具體的인 表現을 한 騎馬人物形式의 騎馬人物土器 등이 모두 그 表現方法에 있어서는 各各 다르지만 그 지니고 있는 意匠과 思想은 다 같은 것으로 모두 被葬者에게 말(馬)을 타고 冥界로 가도록 드리는 供獻의 副葬의 뜻을 가지고 있음은 同一하다.

新羅에는 上述한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以外에 慶州 皇甫洞 天馬塚(一五五號古墳)에서 出土된 白樺樹皮製障泥에 그린 天馬圖(白馬圖(5))를 볼 수 있다. 이 天馬圖도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와 더불어 같은 뜻을 지닌 被葬者에게 드리는 供獻的인 副葬, 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天馬思想은 바빌로니아·希臘·印度·中國 등의 古代文化로서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天馬塚의 天馬圖가 이들 地域과 關係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에 確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特히 注目되는 것은 白馬의 美術史的 造形 技法에 있어서는 中國의 六朝樣式이 보이고 한편 그 周緣部의 心葉形裝飾은 北方系樣式을 하고 있지만 (6) 그 事實은 白馬의 思想的인 面에 있어서는 新羅 在來의 傳統的인 思想體系에 두어야 할 것으로 新羅의 肇國神話와 깊은 關係가 있다. 곧 이 天馬圖가 「白馬」라는 點과 그것이 新羅의 始祖誕生神話의 「白馬」와 相通되고 있음에 더욱 注目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三國史記卷一「新羅本紀一」에 「羅井傍林間 有馬跪而嘶 則往觀之 忽不見馬 只有大卵 剖之 有嬰兒出焉……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

이라 하였고 또 三國遺事 卷一 紀異一 新羅始祖赫居世王 條에

「楊山下羅井傍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跪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馬見人長嘶上天 剖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

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因名赫居世王」

이라 하였다. 이에 考察되는 바는 ① 天馬塚은 그 高大한 規模와 華麗한 副葬品으로 보아 王陵으로 推定되는 데 이 古墳에서 出土된 天馬가 곧 「白馬인네 대하여 新羅始祖 誕生說話에 나오는 말(馬)이 또한 「白馬」로서 當時 新羅社會의 그 最高地位의 君王인 祖上神이 타는 말(馬)은 「白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② 「異氣가 電光과 같이 地上에서 하늘을 向하여 垂直으로 섰다(異氣如電光垂地)」라든가 「말(馬)이 사람을 보고 길게 울며 하늘로 올라갔다(馬見人長嘶上天)」라든가 하는 것은 하늘(天)과 땅(地)과의 上下 垂直關係를 뜻하는 것으로 說話의 白馬는 곧 하늘과 땅사이를 垂直으로 往來하는 말(馬)이다. 이 神話 속의 말(馬)은 神馬(天馬)로서 그것이 白馬이며 이는 天馬塚에서 出土된 神馬(馬) 곧 白馬와 一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③ 新羅의 始祖인 朴赫居世王이 誕生할 때 그 몸에서 光彩가 나고(身生光彩) 日月이 清明하였다(日月清明)는 것이다. 이와 같은 肇國神話의 內容에 담겨져 있는 始祖의 誕生은 天降과 더불어 卵生의 說話를 지니고 있어서 始祖神은 光明神 곧 太陽神과 一連의 關係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前述한 天馬塚에서 出土된 障泥에 그린 天馬(白馬)와 新羅肇國神話에 보이는 神馬(白馬)는 이와 같은 光明神 곧 太陽神을 신고 往來하는 말(馬)로서 다시 말해서 太陽을 신는 말(馬) 또는 太陽車를 끄는 말(馬)로 하늘을 航行한다고 解釋되고 있다(17).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天馬塚의 天馬(白馬)圖 등은 上述한 바와 같이 모두 新羅 肇國神話의 神馬(白馬)와 더불어 同一한 系列과 意匠으로서 被葬者의 靈魂을 태우고 冥界로 往來하는 말(馬)로 供獻的인 副葬이라 하겠는데 高句麗의 鎧馬塚의 壁畫인 鎧馬圖는 이러한 意味를 더욱 強調하는 證據가 되었다. 이 鎧馬塚의 鎧馬圖는 花形馬頭冠飾(18)으로 된 馬面을 쓰고 馬甲을 입고 궁둥이에 各色 깃발을 달은 旗幟 一〇개를 모아 꽂은 말(武裝馬)이 두 馬夫에 의하여 끌려가고 그 앞에서는 雙角冠을 쓴 사람과 맨 앞의 華麗한 立華飾으로

裝飾한 寶冠을 쓴 사람이 先頭에서 引導하는 行列圖가 보인다. 이는 鎧馬塚의 被葬者인 主人公이 生時에 있었던 行列 모습과 같은데 그 말(馬)의 등(背)에 鞍橋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람은 타지 않았다. 그러나 이 壁畫面에는 「家主着鎧馬之像」이라고 墨書하였으니 이는 그 被葬者인 主人公이 말(馬)을 타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그 빈 鞍橋에는 主人公의 靈魂이 탔다고나 할가 하는 意圖가 깃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9). 그리고 高句麗의 舞踊塚 主室 東壁의 騎馬人物圖·雙楹塚 羨道 西壁의 騎馬人物圖·同古墳 羨道 東壁의 騎馬人物圖들도 그 騎馬人物은 被葬者인 人公일 것으로 앞의 鎧馬塚의 鎧馬圖와 더불어 被葬者인 主人公의 靈魂을 태우고 冥界(冥界)에 往來하는 神馬(天馬)일 것이다. 이와 같은 神馬(天馬)思想은 高句麗에서는 壁畫의 騎馬人物圖로 表現되었고 新羅와 伽耶에서는 앞에서 말한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 등 土器類 또는 土製品으로 表現되었고 또한 障泥(天馬塚 出土)의 天馬(白馬)圖로 表現되기도 하였다.

(三) 繼世思想과의 關係

馬刻文(畫)土器·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等이 上述한 바에 依하여 被葬된 主人公의 靈魂이 말(馬)을 타고 冥界로 가도록 하는 意圖에서 供獻하는 土器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는 當時 古代人의 繼世思想에서 나타난 事實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① 墳墓를 營設하는 것 ② 生時와 같이 衣服과 裝身具로 盛裝한 屍身을 墓床에 安葬하여 保存하려 하는 것 ③ 農工具, 武器, 容器(靑銅容器, 土器) 등을 厚葬하는 것 ④ 夫餘·高句麗·古新羅의 記錄에 보이는 殉葬風俗(20)에 따르는 新羅古墳과 伽耶古墳에 殉葬하는 예 ⑤ 古新羅에 있어서의 말(馬)을 殉葬하는 예(21) ⑥ 新羅와 伽耶의 古墳 護石의 周邊에 設置되는 呪術的인 遺構의 예(22) 등은 모두 韓國古代社會의 繼世思想에 關係되는 것으로 곧 被葬者가 冥界에서 平安한 永住를 營爲하도록 葬送하는 것으로 곧 被葬者가 冥界 繼世思想에 따르는 葬送方法의 하나로 被葬者를 冥界에 보내기 위하여



圖 19、白樺樹皮製障泥斗 天馬圖
(古新維) (皇甫洞 天馬塚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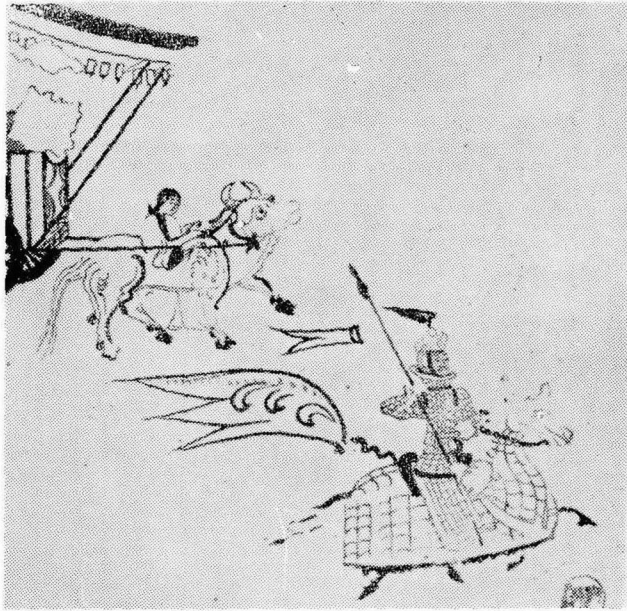


圖 20、雙楹塚斗 騎馬人物圖 (高句麗)
(雙楹塚 美道 東壁斗 壁畫)



圖 21、鎧馬塚斗 鎧馬圖 (高句麗)
(鎧馬塚 支室 西壁斗 壁畫)

마련하는 方途로서 靈魂이 탈 것을 供獻副葬하게 된다. 이 「탈것」은 여러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그 한 예가 上述한 바의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天馬圖인 것이다.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이 밖에도 舟形土器와 車形土器等 供獻土器를 副葬하고 있다. 前者 舟形土器는 太陽船이라 解釋되는 것으로 李秉喆氏 所藏인 純粹한 構造船樣式을 한 舟形土器(伽耶의 例)와 金鈴塚에서 出土된 臺脚上에 船體를 놓은 容器的인 舟形土器(新羅의 例)를 비 못하여 그 出土例가 많다. 그리고 後者 車形土器는 太陽車를 意味하는 것으로 慶州 鷄林路二五號古墳 出土의 純粹한 수레모양을 한 車形土器(新羅의 例)와 有臺杯形構造를 한 容器的인 많은 車形土器(伽耶의 例)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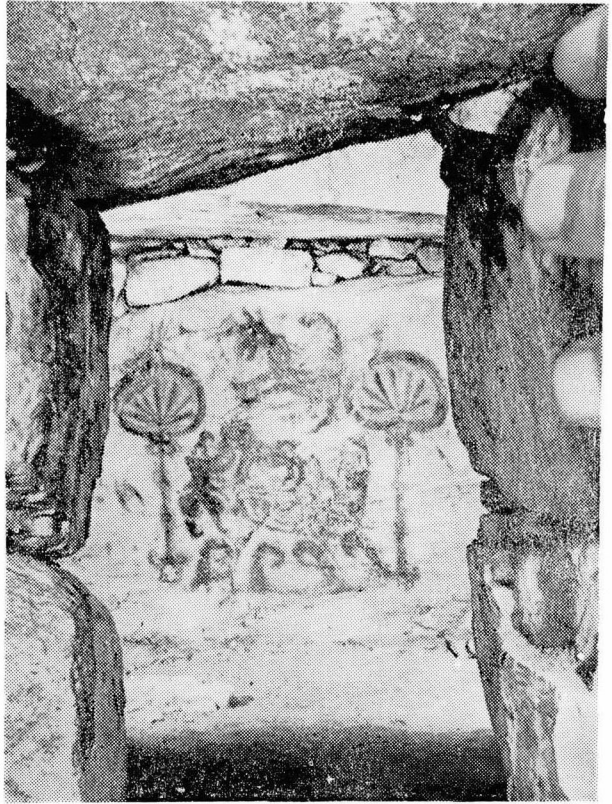


圖 22. 竹原古墳의 壁畫(龍馬와 神馬)(日本)



圖 23. 竹原古墳의 龍馬圖(日本)

있다. 이들 舟形土器(太陽船)와 車形土器(太陽車)는 모두 被葬者의 靈魂을 싣고 冥界 곧 天界로 航行하는 뜻으로 副葬되었다고 생각된다.

繼世思想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地域의 古代社會에 있어서도 같았다. 그리고 他地域의 例도 韓國에 있어서의 繼世思想이 表現된 上 術한 바의 例와 같이 神馬(天馬)·太陽船·太陽車의 思想과 形態로 나타나고 있다(23). 韓國의 神馬(天馬)·太陽船·太陽車等 靈魂昇天의 信仰과 가장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고 가장 가까운 地域인 日本의 例가 있다.

첫째로 神馬의 類例로는 日本 九州地方의 裝飾古墳인 王塚古墳의 前室에서 後室에 들어가는 道路의 左右 巨石에 黑色 騎馬圖와 赤色 騎馬

圖가 있어 注目되고 ② 竹原古墳의 뒤는 龍馬圖와 馬夫가 이끄는 神馬圖는 高句麗古墳壁畫의 意匠을 보이고 있으며 ③ 藥師下南古墳의 後室左壁에 그린 騎馬圖는 말(馬) 꿈꾸니(尻部)에 旗幟를 달고 同心圓을 그린 모습은 神馬(天馬)의 意匠으로 新羅의 土器面에 그린 馬刻文(畫)과 圓形土製品에 그린 馬刻文(畫)과 高句麗의 鎧馬塚의 鎧馬圖와 雙楹塚의 馬甲을 입은 騎馬圖의 旗幟를 꿈꾸니(尻部)에 달은 意匠과 같다(24).

둘째로 太陽船의 數例로는 까란또야(カラントヤ) 第一號古墳 後室에 騎馬圖와 三隻의 배(太陽船)를 함께 그렸고 또 珍敷塚古墳과 鳥船塚古墳에는 太陽을 싣고 天鳥가 앞은 배(船)를 지어 航行하는 太陽船(鳥船)의 壁畫를 볼 수 있다(25).

日本の 裝飾古墳에서 볼 수 있는 神馬 또는 太陽船은 高句麗古墳壁畫에 보이는 神馬(騎馬圖) 新羅의 馬刻文土器·馬刻文土製品·新羅와 伽耶의 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舟形土器·車形土器 등과 相通되고 그 影響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日本의 神馬와 太陽船의 起源과 그 源流는 韓國에서 찾아야 하겠으며 當時의 韓日間에는 다 같이 繼世思想과 더불어 이어 따르는 古墳에 被葬된 主人公이 冥界(天界)로 昇天할 때의 靈魂의 運搬을 위한 神馬(天馬)思想 또는 太陽船과 太陽車의 思想이 있어서 그 同一文化圈을 形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結論

大抵 上述한 바의 馬刻文土器와 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는 곧 韓國古代馬일 것이다. 韓國의 古代馬에 대하여는 文獻과 그 遺蹟과 遺物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이에 文獻과 遺蹟과 遺物을 통하여 본 韓國古代馬의 正體를 살펴보고 이 古代馬를 가장 具體的으로 表現한 馬刻文土器 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의 編年的인 考察을 加하여 結論을 지워 보기로 한다.

文獻에 依하면 韓國馬는 先史時代부터이며 또한 扶餘에서는 名馬를

産出하였고(26) 또 各地域에서 여러모로 말(馬)이 使用되었던 모양이다.(27) 그러나 이들 文獻으로서는 韓國馬의 源流가 어디며 또 騎馬風習과 騎馬戰鬪의 狀況이 明白하지 않다.

다시 遺蹟과 遺物을 보면 靑銅器時代에서 鐵器時代에 걸친 韓國古代馬의 痕蹟을 찾을 수 있다. ① 永川 漁隱洞에서 靑銅製馬와 馬形帶鉤가 出土되고 있는데 이는 곧 스키타이 文化樣式을 하고 있는 北方系임을 알 수 있고(28) 또 ② 金海 良洞에서 出土된 銅製馬形劍把頭飾은 大邱 飛山洞에서 出土된 鳥形劍把頭飾, 崇田大學校 博物館에 所藏된 鳥形劍把頭飾 등과 더불어 알타이地方의 과지리크古墳에서 出土되는 말자갈(轡)의 鏤部樣式을 하고 있어 이들 劍把頭飾도 역시 北方系임을 알 수 있다(29). 한편 ③ 石巖里 第九號古墳 出土 金銅轡·石巖里 第二一九號古墳 出土 金銅轡·慶州塔里出土 銅製轡·大邱坪里洞 出土 靑銅轡·鐵製轡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모두 S字形(프로페라 形式)의 鏤部를 이루고 있는 點이 特色으로 알타이地方의 시베古墳과 과지리크古墳에서 出土된 S字形鏤部를 이룬 스키타이樣式과 相通되는 것으로 곧 北方系임을 알 수 있다(30). 앞에 말한 靑銅製馬·馬形帶鉤·銅製馬形劍把頭飾·S字形鏤部로 된 말자갈 등으로 보아 韓國의 古代馬의 源流는 시베리아 北方系文化에서 찾아야 할 것이고 또 그 騎馬風習은 스키타이 文化의 北方文化系譜이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當時 日常生活에 있어서의 말(馬)에 대한 重要性을 가지고 騎馬生活은 一層 더 發達하였다. 三國志 高句麗傳에는 「其馬皆小 便登山、國人有氣力 習戰鬪」라 하였거니와 高句麗의 말은 모두 體軀가 작았는데 날쌔어 산에 오르기에 편리하고 나라사람들이 勇氣가 있어 말을 타고 戰鬪를 익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高句麗 古墳壁畫에는 騎馬人物圖와 騎馬狩獵圖 그리고 馬甲으로 武裝한 鎧馬圖와 騎馬戰鬪圖가 보이고 있어 이는 文獻과 一致되는 點으로 注目된다. 그리고 新羅의 皇南洞 味鄒王陵 前地域 C地區 D地區의 三世紀 後半부터 四世紀頃의 古式古墳에 말(馬)을 殉葬한 것이 發見되고 그 말(馬)이 高句麗

의 「其馬皆小」라 한바와 같이 小形馬임이 判明되었다. 또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의 古墳에서는 札甲과 各種 馬具가 出土되고 있어 이는 「習戰鬪」라 한바와 같이 新羅와 伽耶의 騎馬風習과 騎馬戰鬪의 樣式이 高句麗와 같았음을 알 수 있다.

以上 記述한 騎馬風習과 騎馬戰鬪의 모습을 그대로 表現한 것이 新羅地域에서 發見된 馬刻文土器와 馬刻文土製品이고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서 出土되는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인 것이다. 이들 馬刻文土器와 馬刻文土製品 등과 또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 등은 다음과 같은 過程을 밟아 發達하였다.

(첫째) 新羅의 馬刻文土器의 그 肩部和 腹部에 그린 馬刻畫는 마치 新羅의 古式土器에 보이는 土偶裝飾土器의 意匠과 같으며 馬刻文圓形土製品이 仁旺洞의 三世紀頃의 古式墳에서 出土되었으니 이는 北方文化系譜로서 三世紀乃至 四世紀頃부터 馬刻文土器가 始源한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新羅와 伽耶의 馬形土器와 騎馬人物土器는 北方系의 말(馬)의 系譜를 이으면서 中國의 馬具裝飾의 影響을 濃厚하게 받고 있어서 이는 四世紀後半頃에 始源하여 五世紀頃에 全盛하였다고 생각되며 六世紀에 이르러서는 漸次 사라져 간 것으로 推定된다.

이들 馬刻文土器·馬形土器·騎馬人物土器는 新羅와 伽耶에서는 高句麗에서 古墳壁畫로 表現된 神馬가 壁畫가 아닌 古墳副葬品인 土器로 表現된 神馬인 것이다. 이 神馬思想은 다시 日本에 건너가서는 裝飾古墳의 壁面에 神馬가 그려져 韓國과 日本은 이 神馬思想에 대한 同一文化圈을 形成하고 있어 이를 알 수 있다.

註

- (1) ① 丁仲煥 「新羅馬形文土器——馬形文의 起源의 考察——」古文化 第三輯 pp. 四〇~四三 서울 韓國大學博物館協會(一九六四)
- ② 金載元 「세로 發見된 土器 數種」美術資料 第六號 pp. 1~4 서울 國立博物館(一九六二)

- ③ 金元龍 「三國時代動物形土器 試考」美術資料 第六號 pp. 五~一〇, 서울

國立博物館(一九六二)

- ④ 秦弘燮 「金鈴塚 出土 騎馬人物型土器」박물관신문 제八·一호 서울 國立博物館(一九七七, 七, 一)

- ⑤ 秦弘燮 「말모양토기」박물관신문 제八·一호 서울 國立博物館(一九七八, 五, 一)

- (2) ① 拙稿 「伽耶地域土器의 研究」新羅伽耶文化 第二輯 pp. 八五~一七五 大邱嶺南大學校新羅伽耶文化研究所(一九七〇)

- ② 拙稿 「異形土器의 發達」韓國의 考古學 pp. 二一五~二二九 東京 河出書房(一九七二)

- ③ 拙稿 「韓國의 야키もの I 新羅」異形土器의 發生と發達」pp. 一一二~一四四 京都 淡交社(一九七七)

- (3) ① 拙稿 「皇南洞古墳發掘調査概報 大邱嶺南大學校博物館(一九七五)
- ② 拙稿 「皇南洞古墳 出土 神龜形土器와 角坏 및 角坏받침」考古美術 一三二號 pp. 1~13. 서울 韓國美術史學會(一九七六)

- (4)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3」[圖版二八] p. 三七 「同解説」p. 二四四 서울 同和出版公司(一九七四)

- (5) 秦弘燮 「前掲書」[圖版二九] p. 三八 「同解説」p. 一四四
- (6) ① 韓國美術五千年展「秦弘燮 古墳美術——圖版五八——」日本朝日新聞社
- ② 李蘭映 「신라의 토우」線刻으로 나타난 土偶」pp. 六一~六四 서울 世宗大王紀念事業會(一九七六)

- (7) 陳列品圖鑑「二七, 馬形土器 및 家形土器」서울 國立博物館(一九六五)
- (8)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圖版二二」[同解説] 서울 國立博物館

- (9) 一九二四年度古蹟調査報告 第一冊 本文「第四十三圖」(5) (一九三三)
- (10)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圖版二四」[同解説] 서울 國立博物館(一九七二)

- (11) ① 拙稿 「三國時代 土器」韓國의 考古學 pp. 二〇四~二二八 東京 河出書房(一九七二)
- ② 久志卓眞 「朝鮮の陶磁」騎馬人物土偶」p. 一一四 東京 雄山閣(一九七四)

- (12) 秦弘燮 「韓國美術全集 3」九四, 말탄사람」p. 九九 「同解説」p. 一五七 서울 同和出版公司(一九七四)
- (13) 一九二四年度 古蹟調査報告 「陶製騎馬人物形容器」pp. 一一二~一二一(一九三三)

- (14) 右同
- (15) 天馬塚發掘調査報告 「白樺樹皮製天馬圖障泥」p. 一二五 「天馬圖」pp. 一五

五) 一五六「民俗學的考察」pp. 一七六~一八四 서울 文化財管理局(一九七四)
(16) 天馬塚에서出土된 天馬圖의 周緣部에 裝飾된 心葉形裝飾文은 저 알타이 地方의 파지리크(Pazyryk) 第五號古墳에서出土된 遺品の 周緣部の 心葉形裝飾文과 同一系列이다.

(Sgel I Rudenko, Frozen Tombs of Siberia B, pattern of fur and leather on a leather bag which contained cheese, from barrow 2.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and Los Angeles, 1970)

(17) 松前健「日本神話の新研究」諸外國の太陽船と冥界譚」pp. 一~二八 東京櫻楓社(一九六九)

(18) 鎧馬塚 鎧馬圖의 馬面과 馬甲은 雙楹塚 姜道 東壁의 騎馬圖의 馬面과 馬甲과 더불어 日本의 和歌山市 大谷古墳에서出土된 鐵製의 馬面과 馬甲, 中國의 麥察一二七窟의 北魏時代 壁畫인 騎馬圖의 馬面과 馬甲, 또 敦煌二八五窟南壁의 西魏時代 壁畫인 騎馬圖의 馬面과 馬甲等과 같은 系列로 그 分布例를 볼 수 있다. 이들 馬面과 馬甲으로 武裝한 騎馬의 源流는 시베리아의 파지리크 古墳出土의 馬面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推定된다.

(19) ①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4 「六五、鎧馬圖」p. 七七 「同解説」p. 一四四 서울 同和出版社(一九七四)
② 拙著 韓國의 야키もの I 新羅 「異形土器의 發生と發展——馬形土器——」pp. 一三四~一三五 京都 淡交社(一九七七)

(20) ① 三國志 夫餘傳 「殺人殉葬 多者百數」
② 三國史記 東川王條 「近臣欲自殺以殉者衆 嗣王以爲非禮 禁之 至葬日 至墓自死者多」

③ 三國史記 智證王條 「下令禁殉葬 前國王薨 則殉以男女各五人 至是禁焉」
(21) 拙著 皇南洞古墳發掘調査報告 「발문」 pp. 六一~六二 「발문」 pp. 一三三~一三四(一九七五)

(22) 拙著 前掲書 「煙筒式構造物」 pp. 一四五~一四六
(23) ① 米田庄太郎 「天鳥船」論集 日本文化の起源 3 pp. 四五九~四七八 東京 平凡社(一九七二)

② 松本信廣 「古代傳承に表われた車と船」論集 日本文化の起源 3 pp. 四五九~四七八 東京 平凡社(一九七二)

③ 松前健 「日本神話の新研究」第一章 自然神話論」pp. 一~二三 東京 櫻楓社(一九六九)

(24) 小林行雄 編 裝飾古墳 「おもな裝飾古墳」 pp. 四八~一〇〇 東京 平凡社(一九七二)

(25) 右同

(26) 三國志 夫餘傳 「其國善養性 出名馬」

(27) 金貞培 「韓國에 있어서의 騎馬民族問題」歷史學報 第七五・七六合輯 pp. 二七~六六 서울 歷史學會(一九七七)

(28) 金元龍 韓國美術全集 I 「一八、馬形・虎形帶鉤」p. 一三三、「同解説」p. 一五五、「二〇、青銅製馬」p. 一三五 「同解説」p. 一五五、서울 同和出版社(一九七三)

(29) ① 金元龍 前掲書 「七四、銅製馬形劍把頭飾」p. 八四

② 金元龍 「鳥形안테나式 細形銅劍의 問題」白山學報 第八號 pp. 三~二六 서울 白山學會(一九七〇)

(30) ① 的梅原末治 著 古代北方系文物の研究 「古代朝鮮に於ける北方系文物の痕迹」p. 一一~一三七、「アルタイ地方に於ける考古學上の發見」pp. 一九五~二〇五 京都 星野書店(一九三八)

② 山本忠尚 「スキタイ式鬻の系譜」史林 第五五卷 第五號 pp. 七七~一〇四 日本(一九七二)

(嶺南大學校博物館)